



제43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4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가운데 시·도지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송철호 울산시장, 양승조 충남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김영수 경남도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앞줄 왼쪽부터)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전남도 제공

“지역주도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 추진”

전국시도지사협, 내년 상반기 기본방향 제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제43차 총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총회에서 시도지사들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발전계획을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역이 중심이 돼 수립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발전계획의 기본방향과 지점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해안·섬지역 발전방안 등을 포함하는 세부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토종합계획이나 국가균형발전계획 등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시도지사들은 또 국회에 현재 계류 중인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 통과를 위한 활동 로드맵, 대학 행정기능 지방이양 추진 현황 등도 논의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정기 브리핑

박주선 “외국공관원 신분증 반납률 평균 46%”

최근 5년간 주한 외국공관원에 발급된 신분증 평균 반납률이 46%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바른미래당 박주선(광주 동남)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신분증 종류별·대상별 발급 및 반납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원에게 총 6,459건의 신분증이 발급되

고, 이중 2,998건만 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별 발급 및 반납현황은 ▲외교관 신분증 50%(4,133건 발급, 2,048건 반납) ▲영사 신분증 49%(176건 발급, 87건 반납) ▲특별신분증(I) 26%(147건 발급, 38건 반납) ▲특별신분증(A) 41%(1,806건 발급, 732건 반납) ▲특별



신분증(B) 47%(197건 발급, 93건 반납) 등이다.

박 의원은 “주한 외국공관원에게 발급해주는 신분증은 일정 부분 특권과 면책이 포함돼 있고, 국가간 신뢰표식으로 도볼 수 있기 때문에 발급과 반납에 있어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병완 “광주지역 대출금 연체율 전국 1위”

광주지역이 전국에서 대출금 연체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드러났다.

6일 대안정치연대 장병완(광주 동남)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신한·우리·SC·하나·씨티·국민합산)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대출금 연체율은 0.31%로 지난해 0.28%에 비해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가 0.4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2016년(0.65%) 이후 매년 가장 높은 연체율을 보였고, 서울(0.38%)·부산(0.36%)이 뒤를 잇고 있다.

장 의원은 “광주지역 경기침체가 연체율 증가로 이어진 것 같다”면서 “정부는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과 함께 일괄적 지



원정책이 아닌 지역 맞춤형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또 “대출 연체율이 높아진 것은 경제난을 보여 주는 지표다”며 “금융당국은 기업대출 연체율 증가 폭이 더 높은 점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광주에 국립아시아도자기센터 건립을”

국립광주박물관으로 이관된 신안 도자기 유물이 수장공간 부족으로 방치돼 있어 ‘국립아시아도자기센터’를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안신당 최경환(광주 북구)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이 국립광주박물관에 올해 신안 도

자류 1만7,052점을 이관했지만 수장공간 부족으로 이관 당시 포장한 상자 그대로 보관 중이다”고 지적했다.

광주박물관 수장고 보관능력은 유물 8,600여점 정도지만, 이관된 신안 도자류는 1만7,052점으로 이미 포화상태다. 내년 이관될 토기·목제품·금속 3,020점과 매년 보관하는 국가귀족매장 문화재



1만3,000여점까지 포함하면 광주박물관 수장고 기능은 사실상 잃게 된다.

최 의원은 “세계적 신안해저문화재 보관공간을 확보하고 해저문화재의 국제 전시를 통한 관광자원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하남지구에 시립도서관 짓는다

건립 타당성조사·기본계획 수립 완료 국·시비 등 291억 투입 2023년 완공

광주 광산구 하남지구에 시립도서관이 들어선다.

광주시는 하남지구 시립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시의회 공영재산 관리계획안 제출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하남지구 시립도서관 주변에는 반경 1km 이내에 10개 단지 6,600여 세대, 1~2km에 14개 단지 1만2,700여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시는 2017년 공공도서관 확충 계획으

로 산수와 사직·무등 등 시립도서관 3곳을 건립한 데 이어 추가 확충 계획에 따라 하남과 상무소각장을 추진했다. 서구 상무상무소각장 건물의 도서관 세 부 계획은 현재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추진 중이다.

하남 시립도서관은 광산구 하남동 641번지 일원에 전체 면적 7,25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들어서며 국·시비 등 291억8,000만원을 투입한다.

열람실·디지털 자료실·문화교실·북

카페 등을 갖춘다. 열람실은 자료이용 부분과 문화교육 부분을 포함해 모두 738석에 장서량은 23만7,400권에 이른다. 이달 중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하고 2020년 4월 기본 및 실시계획용역을 거쳐 이르면 그해 말 착공, 2023년 완공할 계획이다.

현재 광주에는 시립도서관 3개와 광주시교육청 운영 도서관 6개를 포함해 모두 23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인구 밀집지역인 하남지구에는 문화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며 “이번에 시립도서관이 설립되면 주민들의 문화생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DASCO
Development, Addition, Solution Co., Ltd.
(주) **더어스팩션**
Earth & Home Innovation Co., Ltd.

100년 기업을 향한 창조와 혁신

도로안전시설 국내 M/S 1위 기업에서 신·재생에너지 선두기업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대표이사 한상현

신재생에너지 사업 Renewable Energy Business
프로젝트개발 | 금융솔루션 제공 | 엔지니어링 | 자재조달 | 시공
구조물생산(PosMAC) | 운영 및 유지관리 | 태양광방음터널 | ESS

방음벽 사업 Soundproof Facility Business
방음시설 설계 및 시공 | 흡음형 방음판 | 투명형 방음판
방음터널 엔지니어링

건축외장재 Exterior Material
테라코타 | 커튼월

도로안전 사업 Road Safety Facility Business
가드레일 제작 및 시공 | DS 가드레일 | 고규격 가드레일 | 개방형 가드레일
W형 가드레일 | 측구보강형 가드레일 | 교량용 경호방호벽

데크플레이트 사업 Deck Plate Business
테크플레이트 생산 및 제작 | 이지 강판형테크 | 이지 스틸테크
이지 합판형테크 | 이지 단열테크

단열재 사업 Heat Insulating Material
단열재 생산 및 제작 | 이지 보드 | 경질우레탄폼 1,2종

[신·재생에너지 Total - Solution 제공]



프로젝트개발
· 소규모부터 대규모까지 태양광발전소 프로젝트 기획
· 부지 매입 및 개발
· IPP 및 분양사업
· 금융솔루션 제공
· 1,2 금융권, 자산운용사 등
· 준공 및 발전시간 보증
· Bridge Loan 제공



엔지니어링
· 전문 분석프로그램 이용, 입지분석 및 운영분석을 통한 최적설계
· 사업부지에 최적화된 구조설계 제공
· ESS 설계



자재조달
· 최적 기저재 공급 (모돌, 간버터, 접속반 등)
· 구조물 생산 및 제작 (POSMAC 자재)
· ESS(에너지저장시스템)
· 특수구조물 생산



시공
· 도목, 통신, 전기, 설치공사
· 풍부한 시공경험과 노하우로 품질 시공



운영 및 유지관리
· 발전 최적화 솔루션 제시
· 발전 손실 최소화를 통한 이윤 극대화
· 유지관리 신속 대응

문의 : 02-3440-7841(서울지사) 061-370-2057(하남본사)
E-Mail : jh.seol@dasco.kr www.dasco.kr